사이토 료코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태도 변용에 관한 연구』(히쓰지 서방, 2018년)

*책 개요

이 책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 신념, 학습 전략과 같은 학습 태도의 특징과 학습 경험에 따른 변화를 밝히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시행하고, 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교에서 1학기와 2학기의 초급 한국어수업을 수강하며 약 1년간 학습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학습자는 한국어를 쉽다고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경감되었으며, 사용하는 학습전략도 증가하였고 점점 한국어 학습에 친숙해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1학기에비해 2학기가 학습에 대한 적극성이나 낙관적 태도가 약화되는 점도 시사하였다. 또한,이 책에서는 실제적 변화와 학습자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제적 변화와 인지되고 있는 변화에는 차이가 보였고, 학습자자신은 긍정적인 변화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 자신은 실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에서 밝혀진 의욕이나 낙관성의 감퇴를느끼지 않고, 이전보다도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으며, 전략도 다양화되었다고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책의 결론이 한국어 학습자를 이해하고, 보다 좋은학습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자 약력

1979년 도쿄 출생. 2013년 도쿄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언어정보과학전공 박사 과정 수료, 박사(학술). 도쿄대학 동아시아 리버럴 아트 이니셔어티브(EALAI) 특임강사(2013년~2018년)를 거쳐, 고쿠시칸대학 정경학부 전임강사(2018년~). 주요 업적으로는 『言語学習と国、国民、言語に対するイメージ形成の研究』(J&C, 2012년, 분담집필), 『外国語教育学研究のフロンティア―四技能から異文化理解まで―』(세이비도, 2009년, 분담집필), 『일본의 한국어학: 문법・사회・역사』(삼경문화사, 2015년, 분담집필) 등이 있다.